민주 "정권 되찾아 올 기틀 마련해 달라"

한나라 "지역 발전위한 전략적 선택을"

유세 마지막 날 총력전

6·2 지방선거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일 여야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은 막판까지 바닥을 다지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이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날 저녁까지 각종 공방을 주고받는 등 팽팽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등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로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이날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 남구와 서구 등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역 발전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특급 호텔 건설 현장을 방문, "광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 경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평화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도 이날 막판까지 광주 구석구석을 돌면서 '변화와 대안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이날 광양에서 출발,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영암을 순회한 뒤 목포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도 광양,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유세를 펼치며 전남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웅두 민주노동당 후보와 김경재 평화민주당 후보도 각기 대안정당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지역을 누비며 '정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에서는 막판까지 무소속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의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장성군수 선거전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 김양수 민주당 후보와 이청 무소속 후보 간의 공방전이 전개됐으며 강진군수 선거전에는 강진원 민주당 후보와 황주홍 무소속 후보 간에 '관권선거' 설전이 펼쳐졌다.

목포시장 선거전에서는 경관조명 사업 문제와 관련, 정종득 민주당 후보와 박흥률 무소속 후보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전개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소속 기초長 6~7곳 당선땐 '텃밭 패배'

결과따라 총선 물갈이론 부상… 지역 국회의원 초긴장

■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선거 결과에 민주당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오만과 무능'에 대한 지역민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민주당 심판'으로 귀결 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에서 외면 받을 경우, 이는 19대 총선에서 '물갈이' 여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가 4~5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친다면 민주당이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특성상 과거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4~5곳 정도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6~7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지역 민심의 '민주당 심판'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금까지의 관세로는 전남을 중심으로 4~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우세 및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도 광주와 전남을 합쳐 4~5곳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전과 심판' 여부는 격전지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지방의원 선거 결과도 민주당의 현주소를 나타낼 주요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이나 여타 정당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광주·전남지역 19대 총선에서 '물갈이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호남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이는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19대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당내 주류의 홍위병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중진 국회의원 그리고 좌고우면에 급급한 일부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주요 물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특히,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결과는 19대 총선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개표기 시험 가동 6·2지방선거 투표를 하루 앞 둔 1일, 광주시 서구 염주동 빛고을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각 후보 측 참관인들과 서구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기를 시험가동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관위, 투표율 50% 안팎 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투표율이 50%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율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가릴 것 없이 낮아지는 추세다. 지방선거(광역·기초단체장 기준)의 경우 1995년 68.4%, 1998년 52.7%, 2002년 48.9%로 떨어지다 2006년 51.6%로 반짝 상승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선 46.1%로 역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2008년 총선의 오명을 씻고 2006년 지방선거와 엇비슷한 투표율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4~25일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적극 투표의향층이 59.5%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50% 내외의 투표율을 전망하고 있다. 설문에는 당위적으로 투표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인원은 적었던 만큼 50%대를 기준치로 삼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교육의원을 함께 뽑는 만큼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40대 유권자 및 학부모의 투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지만 선거 막바지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0% 전후로 투표율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지금은 친DJ 친盧 따질때 아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지원 유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지금은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호남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상무지구 센트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호남에서 무소속 운운하는데, 호남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뽑혀야 함께 손잡고 일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 들어 호남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씨가 말랐고, 호남지역 기업들이 고충을 겪는 등 호남지역민들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친 DJ냐, 친노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북풍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다가 역풍이 불자 중도실용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가 있지 않으냐"고 현 정권과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는 한번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이룩했던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위기에 처한데다 지금은 전쟁이냐 평화냐,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선옥 광주 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한 박 대표는 "민주당 정체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여성 구청장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무소속 후보와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장성과 나주, 강진, 해남, 신안, 목포를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